

[제목] 우리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레26:1-11)

[일시] 2014년 10월 26일 주일낮예배설교안

[찬송] 찬23장 만 입이 네게 있으면, 찬 590장 논 밭에 오곡 백과, 찬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PW: 감사, MIW: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T.S: 믿음이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1. 서론

1)인사

오늘은 우리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복된 날입니다. 이 귀한 절기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이란 어떤 절기일까요? 최근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지만 정리하면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B.C.1406년경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마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토지소산과 포도주 들과 감람나무 등의 소출 거두기를 마치는 시기에, 과거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에게 해마다 풍성한 소출을 내도록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신16:13~17). 그래서 이 절기를 **‘수장절(출23:16)’**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보면, 그 날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레23:33~44).

혹시 여러분께서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더 알기 원한다면 **출23장, 레23장, 신16장**을 집에서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2. 문제제기

1)본문요약 및 의문점 제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2세대들에게 명령한 말씀으로서, 곧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성소로 나아가 토지소산의 첫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절기가 되면 꼭 중앙성소로 나아가야 합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중앙성소를 바라보고 감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꼭 그 먼 거리를 곡식과 과일바구니를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에는 교통수단도 없는 시대인데, 농사지은 곡식과 과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2)청중적 접근

오늘날 우리도 매번 절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본문문제배경

A.D.141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년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의 일부를 취하여 한 광주리에 담으라. 둘째,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처음에 그곳은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그곳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셋째,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라. 넷째,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 5절에서 10절상반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신26:5-10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6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므로, 7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8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 주께서 우리를 이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10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표준새번역)

다섯째, 스스로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섯째, 그곳에 있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4)문제발생원인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꼭 그것을 성전이 있는 장소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먼 거리까지 직접 곡물과 과일을 들고 가서 경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똑같은 말을 고백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사는 곳에서 곡식과 과일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감사란 매번 하면 것이어야지, 꼭 어떤 날을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5)문제 심리묘사

“에이 귀찮아.”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겠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어요?”

3. 문제해결

1)인간의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어디에 살든지 추수의 절기 때에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곡식과 과일 광주리를 들고서 하나님께 성전까지 나아가서** 그것을 주께 드리고 앞드려 경배하고자 합니다.

2)하나님의 주권(방법, 심정)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받은 **곡식과 과일 광주리가 다음 해에 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려**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의 핵심은 그들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꼭 무언가를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고백을 살펴봅시다. 그들의 고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그들의 비참했던 삶(3가지)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5~7절)

신26:5-7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래 보잘 것 없는 소수의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감으로 큰 민족으로 번성했지만 그들은 결국 애굽에서 노예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국고성 비돔성과 라암셋성을 건축해야 했으며, 흙이기와 벽돌굽기, 농사하기 등의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노동은 그래도 견딜만했지만 살아있는 핏덩이를 나일강물에 던져 죽이는 일은 차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민족은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땀흘려 수고한 댓가를 자기가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애굽인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 ‘고통과 신고와 압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정신적인 고뇌와 고통’을 겪어야 했고, 심하고 일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해야 했으며, 억눌린 상태에서 그들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강제로 억눌림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수고한 대로 추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 너희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우리의 비참했던 과거를 잊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8-9절).

신26:8-9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8절이 한 가지이고 9절이 또 한 가지입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의 광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생활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제국으로서 감히 그 나라에 맞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두려움, 공포)과 이적들(표적들)과 기사들(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온 애굽땅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물은 마실 수 없게 되었고, 농작물은 다 파괴되었으며,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나중에는 사람마저 산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는 손을 들었습니다. “빨리 나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인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금패물과 옷**을 달라는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내 주지 않는다면 무슨 봉변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온 은금패물과 옷들은 일종의 전리품으로서 그동안 그들이 수고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던 모든 임금을 도로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출11:1-3, 12:35-36). 그리고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따라 광야로 탈출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명기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4:32-34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 어떤 국민이 물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는나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관계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을 수도 없었습

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생활 40년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했지만 굶어죽지 아니했고, 관계수로 공사 한 번 하지 않았지만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매일 양식을 공급해주었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짐승까지 마시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면에 그 어떤 성도 쌓지 않고 살았지만 적들의 공격을 다 막아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칼싸움연습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천둥과 비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9절). 사실 가나안땅은 함의 자손들로서 7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가나안, 아모리,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족속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속의 후예들로서 강한 민족이었고, 그들이 짓고 사는 집들은 견고한 산성이었고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숨에 가나안 일곱족속을 쳐서 멸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성은 이 중벽으로 성이 둘러쌓여 있었는데, 바깥성벽은 너비가 1.8m였고, 안쪽 성벽은 3.5m였으며, 중간에는 4.6m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안쪽 성벽 위에는 두 마차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는 9.2m나 되었으니 누가 그 성벽을 기어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성벽은 함성 소리로 안쪽으로 함몰되듯이 무너져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소리의 크기만큼 돌진하여 성벽을 허물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7족속이 벌벌 떨었습니다. 과거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이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던 것입니다.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는 그들이 지었지만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공급하여 결실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게 된 땅은 애굽땅과 같지 않았습니다. 애굽땅은 거대한 나일강에서 물을 퍼서 농사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항상 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 삼각주는 대 곡창지대였기에 고대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땅은 애굽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땅은 모든 빗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었기에 물을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 농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하여 어떤 결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땅의 곡식과 과일을 거둬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에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곡식이나 과일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그것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더러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먼 거리에 살아도, 곡식과 과일광주리를 가지고 오기 불편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4:37-40절의 말씀입니다.

신4:37-40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9 **그러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그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늘에나 땅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이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멀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까지 가게 한 것은 **그곳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요**, 귀찮고 힘들어도 광주리에 곡식과 과일을 담아가지고 가라고 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며**, 그들이 가서 꼭 제단에 그 광주리를 바치면서 고백하라고 한 것은 그들을 종노릇한데서 해방시켜주시고 좋은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것을 얻고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배후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이렇게 건져주시고 복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우상 앞으로 그것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 즉 루시퍼와 귀신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단코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우상들 앞에 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신이나 아세라 신 그리고 태양 신에게 그것을 가져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4. 영적 법칙

감사란 무엇입니까? 과거 내가 어떤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고마운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파종과 발매기와 추수는 내가 한다면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과일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결실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우상 앞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저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5. 복과 결단

1)복

가. 헌신자가 받는 복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 그들의 비참했던 애굽의 노예생활을 잊지 않고, 농사할 수 있는 가나안땅을 기쁨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해마다 따를 따라 비와 이슬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먼 거리라 할지라도 그들의 품에 곡식과 과일광주리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노예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주셨으며, 해마다 그 광주리가 비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주셨고, 그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신4:40).

오늘도 여러분의 손으로 주님 앞에 바친 만큼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가 비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 청중의 더 큰 복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했더라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인 것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당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다가, 온갖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빈털털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에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 팔로 우리를 사탄마귀와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시었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몰아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

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결단

가. 결단의 필요성과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한데서 헤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한 천국을 기쁨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단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감사하고 그것들을 경배하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저주를 받게 되니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가나안 우상이나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고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결단의 축복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여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어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며, 내가 마귀로부터 해방받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기가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라도 주님께 우리의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드림으로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귀와 귀신을 섬기지 않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속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

1) 감사와 회개

- 주여,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근본목적
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주여, 번거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중앙성소까지 가
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주여,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
지 않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주여,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지 않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주여, 절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
다.
- 주여, 절기를 통해서 천국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
다.
- 주여, 절기에 대해 귀찮고 번거롭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주
세요.
- 주여, 절기를 지킴으로 다음 해에 받을 복의 그릇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2) 장자권 누림의 결단

- 주여, 이제는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겠나이다.
- 주여, 이제는 절기를 통해 주님을 더 간절히 찾아가겠나이
다.
- 주여, 이제는 절기를 지킴으로 우상숭배를 멀리하겠나이다.
- 주여, 이제는 절기를 지킴으로 나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지
키겠나이다.
- 주여, 이제는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는 자
가 되겠나이다.
- 주여, 이제는 절기를 지킴으로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겠나이다.

3) 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절기를 귀찮고 번거로운 것으로 여
기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결박을 받으라.
- 절기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일임인데도 불구하고 절기
를 소홀히 여기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 절기를 귀히 여길지어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만을 섬길지어
다. 절기를 통해 우상숭배로부터 확실히 벗어날지어다.

4) 오늘의 말씀의 핵심

1.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심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만을 섬겨 복받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유
에서였구나.
2.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굳이 중앙 성소에 가서 절기를 지
키라고 명하심은 우리를 우상숭배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였구나.
3.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과 만물을 창조
하사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
지 않게 하시는구나.
4.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추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음 해의 복받을 그릇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구나.